

## KTF

### 모바일 소믈리에 서비스

휴대폰으로 와인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가 나왔다. KTF(대표 남중수)가 선보인 모바일 소믈리에는 와인병 라벨에 부착된 핫코드 또는 핫넘버를 통해 휴대폰으로 와인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휴대폰으로 와인 생산지, 품종, 어울리는 음식, 특징 등 해당 와인의 정보와 출시에 얽힌 스토리, 각종 이벤트를 조회하는 신개념 식문화 정보서비스로, 와인병 라벨에 부착된 바코드 모양의 핫코드를 휴대폰 카메라에 비추거나 \*\*\*(별표 2번)+와인번호+매직엔 버튼을 차례로 눌러 사용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사전 정보없이 현장에서 판매원의 조언이나 홀로 와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비스가 대중화되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취향에 맞춰 와인을 즐길 수 있어 와인 주요 소비층인 30~50대 고객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요금은 정보이용료 50원으로 해당와인 코너에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데이터 요금 별도)



## 위해서! 경찰 가출 치매노인 찾기 협력

5.9 경찰청 / SK텔레콤(주)



## SK텔레콤

### 경찰청과 치매노인 찾기 협정 체결

SK텔레콤은 5월 9일 오전 경찰청과 협정을 맺고 '휴대전화 활용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에 나선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경찰청 미아찾기센터에 신고 접수된 실종 치매노인은 총 473명으로 지속적으로 거리를 배회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미아에 비해 주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작아 주변인들의 신속한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휴대폰을 활용한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는 경찰청에 접수된 길 잃은 치매노인의 사진, 인상착의, 실종 장소 등의 정보를 휴대폰으로 송출하면 이 정보를 통해 치매노인을 발견한 휴대

전화 이용자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치매노인을 찾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미 제공중인 모바일 미아찾기 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SK텔레콤 고객 약 650만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은 국민의 필수품인 휴대폰의 네트워크는 모바일 미아찾기 서비스를 통해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9명의 미아를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등 단순한 통화 제공의 기능을 넘어 공익사업에까지 적극 활용되는 사회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SK C&C

### 사우디 디지털방송시스템 수주

SK C&C(대표 윤석경)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TV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 C&C는 70억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市) 국영TV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문화정보부가 발주한 이 사업에 SK C&C는 미국 디지털 방송, 미디어 전문 업체인 DME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 7월까지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TV 스튜디오와 조정실, 편집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된다. SK C&C는 이번 사업으로 중동 지역 디지털 방송 구축 사업의 진출 기반을 확보해 이 분야에서 국내외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중동지역에서 방송시장을 주도해 온 유럽 방송시스템 업체인 톰슨사를 제치고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TU미디어 위성방송과 KBS의 동영상 기술 등 국내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쌓아온 역량을 입증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재현 SK C&C 전무는 "중동 경제 활성화에 따라 이 지역의 차세대 통신 방송 미디어 사업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넷피아

### 터키에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

넷피아(대표 이판정)가 터키어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위한 넷피아-터키 JVC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터키 시장에 진출했다.

넷피아는 이번에 설립한 넷피아·터키의 지분 37%를 확보함과 동시에 터키어인터넷주소 시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올 5월 중순에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넷피아·터키는 터키는 물론 95개국 자국어 인터넷주소 시범 서비스를 거쳐 7월 이후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넷피아는 향후 3년간 솔루션과 터키인터넷주소 등록시 10달러씩 받는 운영 로열티를 통해 약 3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순방에서 벤처기업으로는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참가해 거둔 성과여서 주목된다.



## 모모웹

### 동작인식폰 '모션G'

모모웹(대표 박은수)이 개발한 '모션G'는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실제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휴대폰 부품이다. 모션G를 휴대폰에 부착하면 조그만 휴대폰 키패드를 누를 필요없이 휴대폰을 들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게임속의 캐릭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모션G는 휴대폰을 상하좌우로 흔들 때의 힘이나 속도, 기울기와 방향 등을 인식해 게임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중력 위치를 잡아내는 동작감지센서를 통해 휴대폰의 방향과 위치를 파악한다.

모션G를 통해 즐길 수 있는 게임은 게임전문 사이트(www.focusgame.com)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구슬을 굴려 과일 등 아이템을 먹고 제한된 시간 내에 스테이지를 통과해야 하는 '굴리고 굴리고'를 비롯해 실제 골프를 하듯이 팔을 흔들며 퍼팅하는 '모모샷', 낚시대처럼 휴대폰을 밀고 당기며 고기를 잡는 낚시게임 등 10여 가지 이상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만8천원이다.



## 미라콤아이앤씨

### 나노소자특화팩센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기업용 솔루션 전문업체인 미라콤아이앤씨(대표 백원인)가 지난 5월 3일 나노소자특화팩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나노소자특화팩센터는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국가핵심 연구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및 산학연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출연해 만든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개방형 연구지원 시설을 구축 중이다.

총 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미라콤 컨소시엄은 나노소자특화팩센터의 핵심시설인 팩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MES와 EAP 시스템,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CSS 시스템 및 내부 업무효율화를 위한 ERP, 그룹웨어 시스템 등 총체적인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팩 운영을 지원하는 MES 솔루션의 경우 미라콤아이앤씨의 'MESplus'를 사용해 화합물반도체 연구, 생산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공정실적, 측정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ERP, CSS, EAP와 연동해 팩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

미라콤은 지난해 국가나노종합팩센터(NNFC)에 이어 나노소자특화팩센터(KANC)의 통합정보시스템도 수주함에 따라 반도체 및 첨단 하이테크산업 전문 솔루션 벤더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